

교과부 종합평가 최우수 사이버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The 21st Century Way of Learning

2012 신입입생 모집 6월 18일(월)부터 지원가능
입학문의 02-944-5000



SCU 미디어센터 대형스튜디오



중형스튜디오 4



중형스튜디오 부조정실



중형스튜디오 3



소형스튜디오 7



대형스튜디오 부조정실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ISSN 2005-2049



SCU e야기

Vol. 16

e세상을 움직이는
서울사이버대학교

CYBER WORLD 2012 IT 트렌드 공유하기
SCU TODAY 새 모습 드러낸 연구동 & 미디어센터
PEOPLE 해외석학 · 마샬 콘리 박사
SPECIAL ISSUE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식 및 졸업식 풍경
SCU PARTNER SCU & 경찰

2012



DT브랜드파워대상



인터넷소통대상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도대체 누가 못 박았는가?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미술사에 등장한 것은 한참 후의 일이다. 초창기 화가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묘사할 때 일어서 걷는 모습으로 그렸다. 연약하게 보이는 고난보다는 승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였다. 미술의 역사에서 예수님의 고난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13세기 무렵부터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거나 혹은 구레네 시몬의 도움을 받는 작품이 등장한다.

글 | 박한결 목사

렘브란트의 <십자가에서 내리심>이란 작품은 1634년 렘브란트가 비교적 젊었을 때 그린 작품으로 강하고 섬세한 터치로 갖고 있으며, 대단히 짜임새가 있다. 렘브란트는 모든 걸 치밀하게 처리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지시는 장면을 포착하였다. 노년에도 비슷한 작품을 제작하였으나 분위기가 좀 더 가라앉아 있다. 겉으로 보기에 산뜻한 맛이 없이 어수룩해 보이지만 노년의 작품은 원숙함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니 분위기를 전하며 감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세 십자가>, 1653년

못 박힌 예수님을 내리던 다양한 사람들

작품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예수님을 끌어안고 있는 자다. 니고데모로 추정된다. 조금 의외다. 그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예수님을 찾은 자 아닌가? 바리새인이자 사회 유명인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리 뜻밖의 게 아니었나보다. 아니 좀 더 나아가 두려웠을지도 모른다. 예수님은 ‘블랙리스트’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발각되면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가르침을 듣는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깨닫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에 변화의 모습을 보인다.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죽자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 그와 관계있음을 드러내는 용기를 가진 자였다. 더구나 그가 가져온 향품과 함께 시신을 수습함으로 더욱더 그러했다.

렘브란트의 화폭 속으로 떠나는 여행 ②



<십자가에서 내리심>, 1634년

십자가 위 편에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팔을 붙들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대못을 빼내는 중이다. 아래에도 두 무리의 사람이 눈에 띄는데 오른 편에는 실신한 마리아가 들어오고 왼 편에는 천을 까는 여인들이 들어온다. 마리아는 조금 뒤 천으로 감싸 묘지로 보내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큰 충격에 휩싸여 정신을 잃어버렸다. 마리아의 탄식 외에도 이 그림에서 신음의 소리들이 여기저기 들려온다. 예수님을 뒤따르던 사람들의 통곡, 끝없이 이어지는 아우성.... 그들 대부분은 의지할 데 없는 불쌍한 사람들, 예수 없이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 누구에게도 받지 못한 사랑을 낳생 처음 받아보았던 사람들이다. 그 중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며, 장님으로 평생을 고생하다가 눈을 뜬 거지도 있었을 것이며, 간음하다 들켜 사람들에게 맞아죽기 일보 직전에 목숨을 구한 여인도 있었을 것이다.

십자가에 빨갇게 흘러내린 그분의 사랑

예수님은 조금 전에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다. 중무장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가혹하게 구타하였다. 전쟁터에서 단련된 강인한 몸으로 예수님을 가격하였다. 뺨을 때렸고 가슴을 걷어찼다. 양쪽에 납덩이가 박힌 가죽 끈으로 채찍질을 했다. 땅에 엎어진 예수님은 초점이 잘 맞지 않는 눈으로 그들을 올려 보았다. 그들은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다. 침을 뱉었고 시종일관 조롱했다. 그들은 살인에 이력이 나있고 피에 굶주려 있다. 이미 탈진하여 초죽음이 된 갈릴리 목수의 옷을 벗겼고 가시면류관을 씌웠으며 희롱했다.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은 멸시하였다.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자기 머리를 흔들었다.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의기양양하게 으스스대면서 그를 모욕하였다.

이후 6시간이나 십자가에 달리셨다. 입술이 갈라지고 목이 타 들어가 침조차 삼킬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온 몸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으며 손발은 못으로 찢겨나갔다.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온갖 고통을 다 받으셨다. 아끼던 제자들은 달아났고, 양심을 품은 사람들은 마음껏 조롱하고 비웃었다.

과연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나? 유대인? 군인들? 빌라도? 가롯인 유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한다. “예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한 자는 예수님의 아버지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진다. 예수님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으셨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더구나 그것을 기뻐하셨다면? 그렇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시킨 것은, 아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 그 분의 사랑은 우리를 전율케 한다.

4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봄,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빠알간 피,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십자가가 아닌 투박하고 불품없는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그분의 사랑에 다시 한 번 전율해 보자. 



박한결 목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및 교육대학원(M.Edu.)
(현) 온서울교회 교육목사
(현) 신일중고등학교 교목

SCU e 이야기 Vol. 16

CONTENTS

- 02 BIBLE STORY | 렘브란트의 화폭 속으로 떠나는 여행 ②
- 04 CYBER WORLD | 대한민국 2012 IT트렌드 핫 이슈
- 06 SCU TODAY | 새 모습 드러낸 제2교사 & 미디어센터
- 10 PEOPLE · 여기 e 사람 ① | 마샬 콘리 박사
 - ② | 박종목 총학생회장
 - ③ | 발레리나 김세연 학우
- 14 PEOPLE · 사제지정 | 사회복지학과 박기훈 교수 & 제자 성낙형 · 박은영 · 김선희
- 16 SCU MENTORING | 상담심리학과 이은경(멘토) & 문서현 · 박상희 · 배문정(멘티)
- 18 PLUS WE | 2011 SCU 이러닝 학습수기 수상작
- 20 EDU INFO | SCU 석좌교수 일류특강
- 21 CLICK! SCU | SCU WAVE 봉사단 활동



- 22 SPECIAL ISSUE |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식 및 졸업식 풍경
- 24 SCU PARTNER | SCU & 경찰
- 26 SCU LIFE | 문화 · 공연 · 사이버예절 · 독자퀴즈 · 교수추천도서
 - SCU 학사제도 해설시리즈 4
- 29 SCU NETWORK | 분당캠퍼스 개관식 외
- 32 SCU NETWORK | 서울사이버대학교 신입 보직교수
- 33 SCU NETWORK | 교수동정
- 34 NEW CHALLENGE SCU | SCU 대학원



- 발 행 처 서울사이버대학교
142-700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 49길 60
(미아동 193-15번지)
- 편집주간 이항아 교수
- 편집위원 고운승, 김영민, 김현아, 박병석, 심선경, 임세희 교수
- 발 행 일 2012년 5월 10일
- 기획편집 서울사이버대학교 출판부 (02)944-5325
(주)디플랜트네트워크 (02)518-3430



삶의 역동성 추구하며 IT세상 달구는 뜨거운 감자들

지난 2011년은 이른바 ‘스마트 열풍’이 불어 닥쳤던 한 해였다. 스마트폰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모바일 서비스의 폭도 한층 넓어졌다. 새로운 시대의 정보화 발전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 매년 그해의 IT 트렌드를 전망하는 일도 점점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2012년의 IT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까? 역동적인 움직임이 싹트는 봄, 올해를 뜨겁게 달굴 IT 트렌드 핫 이슈를 짚어본다.

글 | 편집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 전망은 점점 더 불확실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의 흐름 가운데, IT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한 IT는 다른 산업과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낸다. 이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때문에 IT 트렌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전략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IT로 여는 기회와 도전

IT는 정치와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인터넷 등으로 대변되던 정보사회는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조화를 이루면서 인간 중심의 IT로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효율성이나 서비스 혁신 등이 중요하게 여겨졌지만, 앞으로는 기술과 가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스마트 기술이 자리하고 있다. IT 정보화진흥원에서 전문가 설문문을 통해 선정한 열 가지 2012년 IT 트렌드에도 이 같은 현상이 반영되어 있다.

열 가지 핫 이슈 중 가장 첫손에 꼽히는 사항은 다름 아닌 ‘정보 보호와 보안’이다. 이는 스마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미 정보 보호 및 보안의 중요성은 국가나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됐다.

인간 중심의 스마트 세상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도 큰 이슈다. 현재도 비용이나 서비스 업무효율화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편으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활성화와 멀티미디어 콘텐츠 증가로 인해 데이터 규모도 점차 커지는 추세다.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빅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도 달라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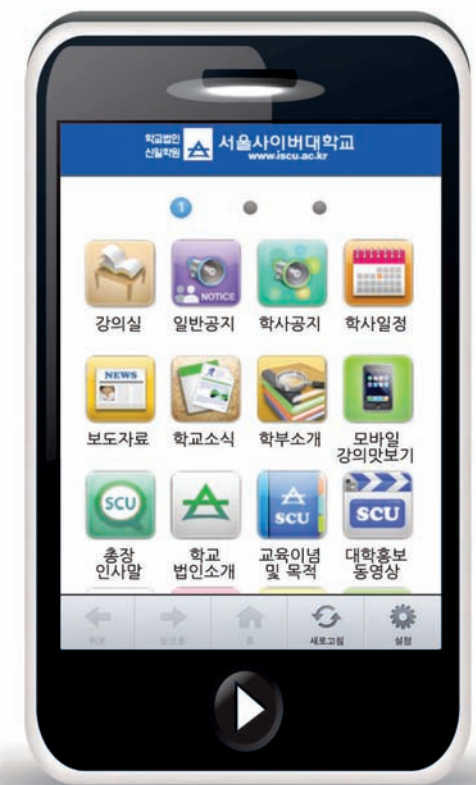
아울러 모바일 환경은 산업 환경도 변화시키고 있다. 시장에는 더욱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가 쏟아지고, 이 같은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진원지가 되었다. 이와 함께 많은 기업들이 ‘소셜 비즈니스’에 주목하며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트위터 등을 활용한 홍보는 이제 특별한 것이 아닌 당연한 것으로 자리를 잡았다.

또한 누구나 참여해서 새로운 제품과 가치를 만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은 많은 사람들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으며, 기존의 정보 지배구조를 와해시켜 버렸다.

이처럼 IT 트렌드는 단순히 IT업계 안의 변화만을 이끌지 않는다. 생활을 완전히 혁신시키는 하나의 시스템인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특정인만이 아닌 모든 사용자들이 IT 트렌드의 변화를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순위	2012년 10대 IT 트렌드 전망
1	정보 보호 및 보안
2	클라우드 서비스
3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4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5	위치기반 서비스
6	스마트 워크
7	소셜비즈니스
8	스마트 디바이스
9	오픈 플랫폼
10	빅 데이터

※출처 : IT정보화진흥원





새 모습 드러낸 연구동 & 미디어센터

최고 시설에서 만드는 최상의 콘텐츠 디지털 환경에서 글로벌 리더를 꿈꾼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연구동이 준공되어 마침내 그 위용을 드러냈다. 제1교사 뒤 편에 신축한 연구동은 지하 1층, 지상 8층에 총면적 약 2,910㎡ 규모의 구조물로 7층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e-러닝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미디어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새로운 환경에서 최상의 사이버교육을 지향해갈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밝은 내일이 기대된다.

글 | 편집부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연구동은 지난 2007년 수립된 '비전 2012 대학발전계획'에 따라 시작된 프로젝트다. 교수·학습역량 강화, 학생서비스 고도화, 교육여건 확충, 대학운영 효율성 제고, 대외협력 및 사회기여 확대, 특수대학원 설립 및 운영 실시 등을 통해 사이버대학 교육의 이상적인 모델을 구축하고, 세계적인 e-러닝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진행되었던 연구동이 비로소 문을 열었다. 아울러 이곳에 자리한 미디어센터를 통해,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에도 힘을 얻게 되었다.



- 1 대형스튜디오
- 2 도서관
- 3 오픈조교실
- 4 교수연구실

러싸인 연구동은 지하1층, 지상8층 규모로 지어졌다. 지하 1층에는 기계실, 지상 1층에는 행정실이 있다. 2층에는 소강의실과 중강의실,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으며, 3층과 4층에는 교수연구실, 5층과 6층에는 교수연구실을 비롯한 오픈조교실이 있다. 그리고 이곳 7층에는 미디어센터가 들어섰고, 8층은 식당으로 꾸며졌다.

연구동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미디어센터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국내 최대 규모, 최첨단 자동화'를 구현한 e-러닝 강의 스튜디오를 구축해 기존의 SD급 스튜디오 5개실에 새로이 스튜디오 7개실을 더해 총 12개실의 스튜디오를 보유하게 되었다. 최첨단 스튜디오는 물론 연구동에 적용된 각종 공법과 설비는 가장 최신식이다.

Mini Interview 김지일 건설본부장

연구동은 차별화된 경쟁력 위한 최선의 선택

CJ건설 건설본부장, 아모제산업 근무 등 현업에서 실력을 쌓아온 김지일 건설본부장은 서울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공사에 직접 참여해온 이 분야의 전문가다. 앞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김 본부장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연구동 시설은 여타 대학과 비교해볼 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수하다.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차별화된 콘텐츠 운용은 독보적이다"라고 자부심을 드러낸다.

"전국에 21곳의 사이버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서울사이버대학교가 가장 앞서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선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차별화된 경쟁력 마련에 대한 고민도 깊습니다. 제가 건설본부장으로 온 만큼, 새로 구축되는 캠퍼스의 기능과 품질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일 건설본부장은 "연구동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8층을 식당으로 배치했다는 점이 획기적"이라 평한다. 일부 대기업에서 이러한 방식의 배치를 채택하기는 하지만, 상업적 목적이나 아닌 건물에서 이 같은 선택을 하려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만큼 학생과 교직원들 가장 아끼고 배려한다는 증거이며, 앞으로도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교직원과 학생의 입장에서 사이버대학 교육의 이상적인 모델을 구축하고, 세계적인 이러닝 교육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연구동 건립과 함께 사이버대학교의 캠퍼스 인프라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국내 최초 독립 오프라인 캠퍼스에서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캠퍼스가 되었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이런 인프라는 '오프라인 대학교의 온라인 분교'라는 수동적 이미지를 벗어나 당당한 하나의 대학교로 인정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최첨단 시설로 사이버 교육의 질 높다

사이버대학은 1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오며 사회 각계에서 활약하는 수많은 동문들을 배출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대학교육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 사이 양적으로는 물론이고 질적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제대로 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채 운영되는 학교도 일부 존재한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연구동은 국내 최초의 독립 인텔리전트 캠퍼스에 이어 '제대로 된 대학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 결과물이다.

국내 제1호 사이버대학교의 자부심을 담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연구동의 근사한 외관은 멀리서도 단연 눈에 띈다. 회백색의 화강암으로 둘



좋은 시설은 결국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드는 훌륭한 무기가 된다. 교수진들도 판서 강의, 간담회 등 원하는 스타일의 강의를 얼마든지 기획할 수 있다. 아울러 대형 스튜디오에서는 개표 방송이나 기상 방송에서나 사용되던 가상 화면도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영화 촬영장에서나 쓰이던 최고급 카메라도 도입됐다.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 냉난방설비를 갖추어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손색이 없는 건물이라는 평이다.

특히 교수연구동은 ‘보다 나은 교육 콘텐츠를 위한 핵심 인프라’라는 기본적인 목적 외에도 재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실제로 학생들이 학습자간 토의 등 마음 편히 활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 및 교수의 안정적인 연구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수연구실도 필수적이다. 또한 여느 오프라인 대학과 달리,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일과시간보다 저녁 시간대에 학생들이 붐비는 편. 직장인을 비롯해 사회활동이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각 지방 거점에도 학생들을 위한 오프라인 캠퍼스를 갖추고 있다.

연구동 건립으로 비롯한 변화에 가장 열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단연 교수진들이다. 학생들의 학업 증진을 위해 다양한 교수 학습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준비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가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발행되는 각종 논문과 저널을 검색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을 비롯해서 강의 준비를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도

수준급을 자랑한다. 자연히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콘텐츠의 수준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발전상을 지켜보는 동문들의 만족감도 높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룬 장족의 발전은 학교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어진다. 애교심을 가진 동문들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입학을 추천하는 사례도 한층 급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추천 입학이 가장 많은 대학’이라는 수식어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고 e-러닝 콘텐츠의 산실 될 미디어센터

앞서 언급한 첨단 스튜디오 구축을 통해 7층에 마련된 미디어센터에는 대형 스튜디오 1실, 중형 스튜디오 3실, 소형 스튜디오 3실 등 다양한 크기의 스튜디오가 마련되어 있다. 스튜디오 전체 면적은 560㎡으로 국내 최대 규모이며, 총 26억원(장비 18억, 방송 4억 5천, 무대세트 2억 5천)에 이르는 제작비용이 투자되었다.

무엇보다 사이버대학의 가장 큰 경쟁력은 우수한 콘텐츠다. 좋은 시설은 결국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드는 훌륭한 무기가 된다. 촬영 방법에 따라 스튜디오 크기를 달리하여 교수진들도 판서 강



의, 간담회 등 원하는 스타일의 강의를 얼마든지 기획할 수 있으며, 대형 스튜디오에서는 기상 방송이나 개표 방송에서 사용되던 가상 화면과 같은 방송국 수준의 기자재와 조명이 사용된다.

영상 퀄리티도 높아진다. 과거에는 640×480 사이즈의 영상이었다면, 이제는 Full HD 화질로 향상되는 것. 무대세트를 비롯한 방송시설과 장비 등도 최상이다. 최근 취재차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방문한 방송사 기자들도 “방송국 시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며 감탄했을 정도다.

새로 구축된 미디어센터에서는 강사가 직접 녹화 시작 및 종료할 수 있으며, 오퍼레이터가 굳이 스튜디오 내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줌과 포커스 등의 카메라 조작이 가능해 교수진들이 더욱 편안한 분위기에서 강의 녹화를 이어갈 수도 있다. 나아가 미디어 자산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파일관리, 트랜스코딩, 서버 업로드 등 촬영 및 영상작업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는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해 보다 효율적인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실제 스튜디오를 이용한 복지시설경영학과 심선경 교수는 “쾌적하고 넓은 데다 스튜디오 내에 카메라가 들어와 있어 이동 강의도 가능할

것 같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한편 최고의 시설을 갖춘 강의용 스튜디오는 서울사이버대학교가 협력하고 있는 여러 사회 복지 시설 등의 기관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인프라가 열악한 시설과 기관들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연구동과 미디어센터는 내적으로는 교육의 질 강화를 위한 중요한 인프라이자, 외적으로도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비롯한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연구동을 비롯한 미디어센터 등 최고의 시설이 갖추어진 지금, 학교 안팎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에 거는 기대감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일류 사이버대학교라는 명성에 걸맞은 최상의 e-러닝 콘텐츠들이,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명예를 드높힐 것으로 기대한다. 

- 1 대형스튜디오 부조장실
- 2 스튜디오 안에서 강의 콘텐츠를 촬영하고 있는 심선경 교수
- 3 중형 스튜디오

Mini Interview 콘텐츠개발팀 최준성 주임

압도적인 환경에서 무결점 콘텐츠 제작 기대

콘텐츠개발팀에서 근무하며 이번 미디어센터 구축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한 최준성 주임은 막바지 작업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 최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타 사이버대학교는 물론 방송국, 일반 스튜디오 등 여러 곳을 다니며 자료 조사와 벤치마킹을 마쳤기에, 갓 문을 여는 서울사이버대의 미디어센터에 대한 자부심도 크다.

“이전에 구축한 우리 대학의 미디어센터는 객관적으로 봐도 사이버대학 최대 규모이고,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여타 대학에서도 특정 콘텐츠는 스튜디오나 장비를 대여해 영상을 만들기도 합니다만, 우리 대학에서 제작하는 콘텐츠는 모두 고품질의 영상으로 제작됩니다. 파일 변환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기존의 인력이 촬영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 자체의 퀄리티도 한층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디어센터 구축으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한 번의 촬영으로 웹은 물론 IPTV, 스마트TV, 모바일 등 학생들이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이른바 원 소스 멀티유스(one source multi-use) 시스템이 구축된 것. 덕분에 학생들은 학습의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어떤 환경에서 수강을 하더라도 출석 연계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대학교 스튜디오는 국내 사이버대학 중 최고의 규모와 장비를 갖추었다고 자부합니다. 좋은 시설이 갖추어진 만큼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무결점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다음 수준이겠지요. 앞으로도 보완할 점은 보완해 나가면서 최상의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국제교육 컨설턴트 대표 마셜 콘리 박사

평화유지와 군축분야의 세계 석학 인도적 지원으로 구축하는 평화로운 삶

캐나다 UNESCO 부사무총장을 지낸 콘리 박사는 인권과 평화군축, 인도적 지원 분야의 저명한 교수이자 훈련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이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30년간 평화군축 분야에 몸담으며 활발한 연구와 저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콘리 국제 교육 컨설턴트(Conley International Education Consultant)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마셜 콘리 박사는 캐나다·독일·유럽·일본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UN기관과 함께 평화군축, 인도적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국제법과 인권, UN평화활동 분야와 관련해 140편이 넘는 저서와 논문을 집필하고 발표한 마셜 콘리 박사가 한국을 방문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특강을 비롯해 한국국제협력단과 국방대학교에



권구순 교수와 함께 캠퍼스 투어 중인 마셜 콘리 박사

서의 특강과 워크숍 발표를 위한 그의 한국 첫 방문이다.

한국 첫 방문, SCU 인프라 시설에 감탄

“TV와 잡지를 통해 한국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실제 와보니 생각보다 훨씬 활기차고 생기가 넘치는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연수진행을 위해 매년 일본을 방문해왔지만, 이웃나라인 한국에 올 기회가 없어 아쉬웠는데 서울사이버대학교 권구순 교수님께서 특강과 워크숍을 주선한 덕분에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네요.”

그는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사이버대학임에도 인프라가 매우 훌륭하다”며, “세계 어느 대학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감탄의 인사를 보냈다. 사실 그는 아카디아(Acadia) 정치학 교수로 재직할 당시 온라인 강의시스템을 개발했던 당사자다. 1995년부터 2년간 연구비 지원을 받아 동료 교수 1명과 조교학생 5명이 함께 ‘디지털 아고라(Digital Agora)’라는 온라인 강의체계를 개발한 것.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다. 실제로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캐나다 인문·사회과학연구위원회(Social Science and Humanity Research Council)로부터 혁신상(Innovation Award)을 받기도 했다.

세계 평화를 위한 인도적인 해결책 찾기

마셜 콘리 박사의 주 전공은 정치학이다. 인권보호에 대한 제도적인 모니터링과 침해 시의 법집행에 대한 연구, 민주시민육성을 위한 교육과 생명윤리 등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는 UN평화유지활동과 평화구축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지속해 왔다. 많은 이들이 냉전 이후에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오히려 내전 형태의 분쟁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민간인 사상자 발생, 난민과 내부 유랑민 대거 양산 등의 문제 등으로 국제사회는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분쟁 징후가 보일 때 사전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취약국가들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원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단 종전이 되면 분쟁 당사자 간 화해와 협력을 촉구하고 정치 및 경제 시스템이 조속히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지요.”

한편으로 그는 2009년 OECD내 원조국의 협의체인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회원이 된 한국이 향후 더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특강에서도 인도적 지원정책과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발표를 한 그는 한국정부 관계자들과 건설적인 의견을 나누고 싶다는 의사도 나타냈다. 이같은 움직임을 통해, 인도적인 관점에서 세계평화를 지속해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기를 기대한다.▲

캐나다 유네스코 부사무총장을 역임한 마셜 콘리(Marshall Conley) 박사는 인권과 평화 군축, 인도적 지원 분야의 저명한 교수이자 훈련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다. 특히 그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30년 동안 평화 군축 분야에 몸담으며 활발한 연구와 저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평화 유지와 군축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그가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방문했다.

글 | 편집부

제12대 총학생회장 박종묵 학우(복지시설경영학과 4학년)

최근 <Let's Go Together>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서울사이버대학교 제12대 총학생회장이 선출되었다. 주인공은 바로 복지시설경영학과 박종묵(54) 학우. 제11대 총학생회에서 사무총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던 그는 '사랑·열정·배려'를 바탕으로 한 실천으로 전지역·전학과·전교생들을 하나로 통합하리라, 다짐했다.

글 | 편집부



섬기는 마음으로 도약하는 SCU 만들 것



서울사이버대학교인이려면 누구나 평등한 위치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박종묵 총학생회장(왼쪽)과 학생회장을 도와 학교를 이끌어 줄 이영옥 수석부회장(오른쪽).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에 대한 꿈을 한시도 버린 적 없었다는 박종묵 학우. 개인 사업으로 보란 듯 성공을 거두긴 했지만, 학업에 대한 갈증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특히, 사회복지 관련 학과에 관심이 많았다.

“시청 앞 지하도를 걷다 우연찮게 서울사이버대학교 광고판을 보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제겐 심장 뛰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길로 학교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나누었고, 2009년도 입학을 신청했죠. 학교는 물론 교수진을 향한 신뢰가 들었거든요.”

박종묵 학우가 선택한 학과는 '복지시설경영학과(이하 복지과)'였다. 평소 인간이 추구해야 할 행복과 가치 있는 삶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해 왔던 까닭이다. 그리하여 사회복지 및 시설 운영에 관한 지식을 고양하고, 관련자격을 취득해 놓으면 여러모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왜 서울사이버대학교였냐고요? 전용공간이 없어 건물 전세나 오프라인대학교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여타 사이버대학교들과는 달리, 장학제도 등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나 수업 프로그램이 상당히 우수했어요. 무엇보다 교수진과 학생들이 스스럼없이 소통할 수 있는 특유의 학습 분위기가 마음을 사로잡았죠.”

학교생활은 박종묵 학우가 기대했던 그 이상으로 만족스러웠고, 서울사이버대학교 재학생으로서의 자부심도 해가 갈수록 단단해졌다. 제11대 총학 사무총장으로 대내외 실무를 총괄할 수 있었던 것도 모교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기 때문이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동기들은 그에게 총학생회장 진출을 권유하기에 이르렀다.

모교와 총학의 파트너십 고양 및 관계 발전을 위해 박종묵 학우는 다채로운 행사들을 준비 중에 있다. 'SCU Spring Festival (05/19)'과 'SCU 재학생 연합MT(06/16~17)' 등이 그것. 불우한 경제적 여건 탓에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학우들을 대상으로 'Together 장학사업'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학교는 전국 21개 사이버대학들 중 명실상부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계무대에서도 그 위상을 인정받은 바 있죠. 그러나 안심은 금물입니다. 수많은 대학들이 하루가 다르게 진보하고 있기 때문이죠. 학교와 총학생회가 꾸준히 상호 협력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교육기관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학업에 대한 열정과 명확한 목적의식이 있었기에 오늘에 다다를 수 있었다. 고백하는 박종묵 학우. 서울사이버대학교로 인해 인생의 중요한 전기를 맞게 되었다는 그의 도전은 바로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스위스 취리히발레단 수석무용수 김세연 학우(문화예술경영학과 1학년)

한국의 발레를 세계에 알리고 대중화시키는 데에 두루 활약 중인 스위스 취리히발레단 수석무용수 김세연(32) 씨.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올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신입생으로 입학했기 때문. 앞으로의 대학 생활이 새삼 기대된다는 김세연 학우를 어렵게 만나보았다.

글 | 편집부



나를 발전시키는 선택 세상서 가장 멋진 일



미래의 공연 기획자로서 창의적인 전문성을 구축하고자 서울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부에 지원하게 되었다는 김세연 학우.

김세연 학우의 이력은 그야말로 화려하다. 국내 최고의 위상을 자랑하는 유니버설발레단과 네덜란드 국립발레단을 거쳐, 현재는 스위스 취리히발레단 수석무용수로 그 이름을 떨치고 있는 까닭이다. 수많은 해외공연으로 인해 몸이 열이라도 모자랄 법한데, 이제는 문화예술경영 분야까지 공부할 계획이란다.

“발레리나는 다른 직종에 비해 수명이 다소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무언가 획기적인 일을 궁리하지 않으면 안 되죠. 평소 공연기획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로 했어요.”

실제로 그녀는 작년 여름, ‘플라잉 레슨(Flying Lesson)’에서 작은 공연을 기획하기도 하였다. 작품 선별에서부터 안무가 및 파르티너 섭외까지 직접 맡아서 프로듀싱했다. 오랜 시간을 준비해 무사히 공연을 올리기는 했지만, 늘 완벽을 기하고자 하는 김세연 학우의 입장에선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았다고 한다.

“제가 보다 심도있는 지식을 갖고 있었더라면 기획 과정이 훨씬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적당한 코스를 알아보고 있었죠. 마침 서울사이버대학교에 ‘문화예술경영학부’가 신설된다는 소식을 들었고, 바로 원서를 넣었죠. 더구나 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학과 교수님들이 전부 문화계에서는 지극히 잘 알려지신 분들이었기에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믿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모국어로 수업을 듣게 돼 더없이 반갑고 설렌다는 김세연 학우. 외국에 머무른 기간이 길었던 탓에 국내 문화예술계를 다룬 교육프로그램들이 무엇보다도 기대가 된다고 덧붙인다.

“전공과목뿐만 아니라 교양과목들도 흥미로운 내용이 많더라고요. 지금은 <생활 속의 클래식> 강의를 매우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콘텐츠들이 다양해 우리나라 문화예술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답게 김세연 학우의 포부 역시 남다르다.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공연을 기획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 아직은 수업과 학습방법에 적응하느라 여념이 없지만 예감이 좋으며 자신감을 드러낸다.

“지난 겨울에 봤던 캠퍼스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여름엔 어떤 분위기인지 조만간 꼭 다시 방문할 거예요.”

아름다운 그녀는 다짐한다. 발레리나로서, 서울사이버대학교 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김세연 학우가 빛어낼 눈부신 무대가 벌써부터 눈앞에 펼쳐지는 듯하다.📖

더 밝은 내일 위한 토대 구축

복지사회의 씨앗을 뿌리는 스승과 제자

스승
박기훈 교수(사회복지학과)

제자

- 성낙형 사회복지학과 졸업생
- 박은영 사회복지학과 4학년
- 김선희 사회복지학과 3학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퇴근할 저녁 여섯 시.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에 위치한 방과후연합회에서는 유쾌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즐거운 웃음의 주인공, 박기훈 교수(사회복지학과)와 그의 제자인 박은영, 성낙형, 김선희 씨를 만났다. 그들이 모인 까닭은 학과에서 공부한 복지사회를 몸소 실현하기 위한 커뮤니티비즈니스연구회 모임 때문이었다. 저녁 식탁에 오르는 흰 쌀밥처럼 풍성하고 따뜻한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자.

글 | 편집부



학문에 대한 열정을 키워준 커뮤니티비즈니스연구회

박은영 사회복지학과 4학년 | 교수님과의 첫 인연은 커뮤니티비즈니스연구회를 발족하겠다는 메일을 받은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지역 사회 내의 수단으로 공급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다시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를 가꾸는 전반의 과정을 커뮤니티비즈니스라고 하는데, 그 때는 그게 무엇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교수님이 이런 모임을 기획하게 된 연유가 아직까지도 궁금하네요.

박기훈 교수 | 사실 2010년부터 커뮤니티비즈니스연구회를 기획하고 있었지요.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일종의 사회적 기업이란 걸 모두 아실 겁니다. 지역 활성화나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고용창출문제 등 우리 사회에 산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임이 필요하단 생각이었지요. 더불어 이 모임이 졸업생과 재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되었지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박은영 학우가 이 모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줘서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박기훈 교수
일본 京都大 인간·환경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 종로 시니어클럽 운영위원을 비롯하여 서울 강북구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 위원 등 활발한 고령화 사회 정책 연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저서로는 『고령자의 경제적 능력의 다양성과 개호정책』, 『사회복지학개론』 등이 있으며, 고령자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분석·연구하며 건강한 복지사회를 만들어가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제자 성낙형
2011년 2월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과정을 밟고 있으며, SGS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과정 3기를 수료하여 사회적 기업가의 포부를 실현하고 있다.



제자 박은영
현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학년으로 재학 중이다. 글로리아 실용음악학원 원장이기도 한 그녀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징검다리' 서울동부지역 회장 및 서초구 여성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지역사회의 현장에서 사회복지에 공부하고 있다.



제자 김선희
현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학년으로 재학 중이다. 방과후학교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커뮤니티비즈니스 '징검다리'의 첫 모임 참석을 계기로 앞으로 복지에 관한 심도 깊은 학문적 교류에 힘을 쏟고자 한다.

성낙형 사회복지학과 졸업생 | 고마운 건 오히려 저희들이지요. 이런 토론 모임을 통해 교수님과의 즐거운 추억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전북 완주에서 가졌던 커뮤니티비즈니스 견학은 그전보다 교수님과 훨씬 더 많이 친해질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완주까지 한숨도 쉬지 않고 운전을 해주셨던 교수님의 열정이 인상 깊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범적인 커뮤니티비즈니스 모임을 볼 수 있게 된 것도 좋았던 점입니다. 교수님이 실천하고자 하는 복지사회는 저희들에게 많은 감화를 주고 있습니다.

박기훈 교수 | 처음 이 모임을 계획했을 때만 하더라도 해보자는 의욕만 있었지, 토론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았지요. 발표를 하고 모임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표의 중요성과 토론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을 통한 강의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리를 가지고 모이는 것에 대해서도 다들 갈증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토론을 통해 강의 과정에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동기의식을 공동의 화두로 끌어 올릴 수 있다는 점을 학생 모두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기유발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으니까요. 어떤 형태건 간에 이 모임이 하나의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네요.

건강한 복지사회의 씨앗, 제자들의 성장

박은영 사회복지학과 4학년 | 교수님과의 학문적 교류를 통해 저는 서울동부지역회장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회장이라는 직책이 주는 책임감은 아주 무거운 것이지만, 한편으로 더 밝은 사회를 위한 토대를 만들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끼곤 합니다.

김선희 사회복지학과 3학년 | 저는 처음으로 이 모임에 왔습니다. 교수님은 강의를 통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복지가 무엇인지 많은 고민을 던져주시는 분입니다. 열악한 우리사회의 여건 속에서 연구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교수님이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과 올바른 복지에 대한 길을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기훈 교수 | 사실 복지와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접목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공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서 어디서부터 설명해드려야 할지 막막합니다만, 복지에 대한 연속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커뮤니티비즈니스는 복지사회의 발전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요. 이런 맹점을 사회 복지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유념하길 바랍니다.

성낙형 사회복지학과 졸업생 | 저는 교수님의 추천 덕분에 SGS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과정까지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SGS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과정은 경기도와 성균관대학교, 삼성이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목표로 협력 사업하는 아카데미인데, 앞으로도 역량을 갖춘 사회적기업가로 우리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기훈 교수 | 세 분 모두에게 제가 실질적으로 해드린 것이라곤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SGS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는 작년에 여러가지 정보들을 검색하다가 우리 학생들도 응시를 하면 좋겠다 싶어 단순히 정보를 드린 것 밖에는 없습니다. 경영대학원 1년의 과정을 10주만에 이수하고 수료한 성낙형 졸업생의 열정을 오히려 제가 본받아야지요. 성낙형 졸업생을 비롯한 우리 동문들이 앞으로 이 사회의 튼튼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 믿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든든

‘멘토링 프로그램’의 진수를 보여주다

탐스럽고 당도 높은 열매를 수확하려거든 필히 각고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은경 멘토가 조 이름을 ‘포도나무’로 지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멘토링 시스템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멘티들은 자랑스레 이야기하곤 한다. “우리는 참 인복(人福) 많은 사람들”이라고.

글 | 편집부



조화의 아름다움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포도나무’ 멘버들. (단체사진 순서대로 박상희/배문정/이은경/문서현)

변덕스러워서 더욱 설레는 봄날, 막간을 이용해 ‘포도나무’ 조 멤버들이 뭉쳤다. 습관처럼 안부를 주고받는데도 꽤나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양 그들 사이에는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진심 어린 조언과 격려가 기반을 이루었던 시간, 멘토와 멘티들은 선후배이기 이전에 삶을 나눈 자매지간과도 같았다.

다른 듯 닮은 얼굴들

이은경 멘티 다섯 분, 전부 자리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각자 너무 바빠서서 일정 맞추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네요. 참, 박상희 멘티님 ‘우수 멘티’로 선정된 것 축하해요! <멘토링 워크숍>에서 수기 발표하는데, 나 눈물 날 뻔했잖아요(웃음).

박상희 에이, 저 놀리시는 거죠?

이은경 진짠데? 다들 안 그랬어요?

배문정 맞아요. 더구나 박상희 멘티님은 현재 멘토로도 활동 중이시잖아요.

박상희 다 이은경 멘토님 덕분이죠. 제가 ‘포도나무’ 멤버들을 통해 받은 것 후배님들한테 고스란히 돌려주고 싶어 시작했는데, 생각만큼 쉽지 않더라고요. 새삼 ‘우리 멘토님이 대단하시구나’ 깨닫고 있는 중이에요.

이은경 처음엔 누구나 그래요. 멘티들과의 소통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공감대를 찾게 되면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재미도 있고.

문서현 멘토님도 저희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이은경 뭐, 우리 멘티님들이 평범한 분들은 아니잖아요? 하하, 농담이에요. 솔직히 고백하면 첫인상부터 낯설지 않았어요. 왜 특별한 인연이 될 사람들은 눈에 똑똑 박힌다고 하잖아요? 멘티님 한 분, 한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박상희 아아, 듣고 보니 저는 아직 한참 멀었나 봐요.

이은경 박상희 멘티님 잘하고 계세요. 자원봉사하시는 상담센터에서도 평가가 좋다고 들었는데. 사실 제가 1학년이었을 때, 멘토가 좀 불성실한 분이었어요. 낯선 학교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합류한 프로그램이었는데, 대단히 실망스러웠죠. 그때 다짐했어요. 진정한 멘토가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리라, 하는.

배문정 와, 목표 달성하셨네요. 저희한테 정말 최고의 멘토이시니까요.

문서현 동감이에요. 주부로, 학생으로, 각종 사회활동가로도 모자라, 총학생회 부회장직까지 겸하고 계시면서 단 한 번도 저희 멘티들한테 소홀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야말로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네요. 곁에 있으면 절로 기분이 좋아지고 의욕도 생기죠.



이은경(멘토)

박상희(멘티)

배문정(멘티)

문서현(멘티)

배문정 멘토님 안 계셨으면 수업에 적응하기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수강 신청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과목을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 공부하는 노하우도 가르쳐 주시고, 멘토님 없는 대학생활이젠 상상할 수도 없어요.

멘토링 제도의 모범으로 남고파

박상희 인기 멘토님으로 소문이 자자하세요. 작년 학기 초에 자그마치 열두 명의 멘티들이 이은경 멘토님을 희망한 바 있다고 들었어요.

이은경 아이고, 쑥스럽네(미소). 너무 감사한 일이지. 근데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듯해 다른 멘토님께 부탁드렸어요. 저야말로 행운아죠. 여러분들을 만났으니. 세 학기 연속 저를 멘토로 지목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저 취지에 충실했을 뿐인데.

문서현 본질을 지키는 것, 제일 어려운 대목이잖아요. 멘토님 잘못 만났으면 저희 ‘포도나무’도 어느 그룹들처럼 단순한 친목도모에 그쳤을지 몰라요.

배문정 멘토링이 우리처럼 활성화되어 있는 그룹도 드문 것 같아요. 멘토님 열정이 대단하세요. 저도 박상희 멘티님처럼 멘토 역할을 해 보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요. ‘과연 내가 우리 멘토님 만큼 할 수가 있을까’ 의구심이 들고.

이은경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잘할 수 있을 걸요. 다들 장학생인데다, 리더십 역시 남다르잖아요. 포도송이처럼 버릴 것 하나 없는 멘티님들, 걱정 말고 도전하세요!(웃음)

문서현 상당수의 학우들이 멘토링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만큼, 제도적인 보완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프라인 모임시 장소가 마땅치 않아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은경 맞는 말이에요. 저 역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지요.

박상희 멘토님께서 열심히 뛰고 계시니, 조만간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요? 부디 건강부터 챙기세요. 얼마 전에도 병원 신세 지셨다고 들었어요.

이은경 염려 말아요. 여러분들 졸업하는 그 순간까진, 저도 맘놓고 아프지 못할 것 같아요. 알죠? 제가 우리 멘티님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

공부 그 자체를 즐긴다

학우에게 듣는 효과적인 학습 노하우

고등학교까지 틀에 짜인 공교육 학습방법에 익숙한 상황에서 대학에 입학하면, 학습방법부터 학점 관리까지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향하기 쉽다. 하물며 강의실, 학우들, 정해진 강의 시간마저 없는 자유로운 사이버대 교육 시스템에 익숙해지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서사대 학우들 대다수가 그렇듯 학업 외에도 직장생활과 더불어 가정을 돌보아야 하는 일인다역을 소화해내야 하니, 시간을 쪼개 하는 공부가 쉬울 리 없다. 그래서 매년 개최되는 '2011 SCU 이러닝 학습수기 공모전'의 수상작들을 보면, 서사대 학우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 노하우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글 | 편집부



올해도 많은 학우가 SCU 이러닝 학습수기 공모전을 통해 자신만의 학습 노하우를 공개했다. 그 중 우수상 3명(사회복지 권현주, 가족상담 변은주, 사회복지 조잉경), 최우수상 2명(멀티미디어디자인 안진영, 노인복지 허숙)이 수상했으며, 대상의 영광은 상담심리학과 박은경 학우에게 돌아갔다. 이들 수상자는 2012년 3월 10일, 시상식과 더불어 학습전략 특강에 참여했다.

대상을 차지한 박은경 학우는 이날 학우들 앞에서 [e-러닝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꿈을 키운다]는 주제로 2011년 재학 기간 온라인 강좌 듣기를 활용한 본인만의 학습 노하우를 공개했다. 또한, 시상식과 수기 우수자들의 특강 외에 [지식기반사회의 자기 계발을 위한 학습전략]이라는 주제로 박종선 교양학부 교수의 특강이 진행됐다.

한편 사회복지학과 임세희 교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특강을 통해 대학 교육의 목표와 더불어, 학업에 임하는 자세부터 학습계획 짜기, 효과적인 수업 듣기, 토론방법, 리포트 작성 요령, 시험 보는 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 노하우를 제공했다. 임 교수는 "성공하기 위한 공부, 성실한 공부 모두 좋다. 하지만 공부한다는 것 그 자체에 의미 있는 것!"이라며 특강을 마무리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 2012년 3월 10일, 'SCU 이러닝 학습 수기' 시상식과 함께 박종선 교수의 학습 전략 특강이 진행됐다.

e-러닝을 통해 자신감 얻고, 꿈을 키운다

글 | 박은경(상담심리학과 11학번)

사람들은 누구나 살면서 열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바로 학업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던 현실은 삶에서 자신감마저 잃게 했습니다.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 스스로에게 담당하지 못할 거라는 결론을 내렸고, 가정주부인 제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이버 대학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학업에 손을 놓은 지 20년 만에 다시 공부한다는 설레임과 함께 엄청난 부담감도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지만 한 발 두 발 천천히 내딛다 보니 1학기엔 우수 장학생, 2학기엔 최우수 장학생으로 1학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미약하지만 저의 학습법이 여러분께서 e-러닝 사이버학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첫째, 멘토와의 교류입니다. 물론 여건상 멘토와 잦은 교류를 하기는 어려웠지만 첫 입학

후 만난 멘토님께서 학습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과목을 수강하면 진로에 도움이 되는지, 자격증과 진로정보에 대해서도 꼼꼼히 알려 주셨습니다. 먼저 e-러닝 사이버학을 해보신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사이버학습 요령도 잘 알려 주셨습니다. 멘토님의 도움을 받으시면 e-러닝 학습에 길잡이가 되어 주실 겁니다.

둘째, 강의 수강을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가정주부로서 공부하는 것이 쉬운 일 만은 아니었습니다. 두 아이들을 챙기고 집안일을 하다보면 공부시간이 부족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꼭 한 과목씩 수강하도록 했습니다. 강의가 밀리면 한꺼번에 여러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강의에 집중력이 떨어져 학습효과가 적어지므로 하루에 한 과목씩 집중력있게 수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셋째, 강의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는



『e-러닝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꿈을 키운다』는 주제로 학습수기 대상의 영광을 차지한 상담심리학과 박은경 학우

것입니다. 강의를 듣다보면 용어도 생소하고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시험기간에 다시

복습할 때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험을 치르다 보면 내용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대충 문구만 암기해서는 문제를 풀기 힘듭니다. 내용을 이해해야 암기하기도 쉽습니다. 강의를 듣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망설이지 말고 학습Q&A를 통해서 교수님께 질문 드리면, 교수님께서 빠르고 친절하게 알려 주십니다. 내가 질문했던 부분은 그 만큼 내 것으로 만들기도 쉽습니다.

넷째,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늦은 나이에 열망하던 학업을 다시 시작하려면 패기 같은 것이 생기더군요. 강의를 들을 때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알려주시는 부분은 거의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별표를 꼭 해둡니다. 교수님께서 여러 번 자세히 설명하시는 부분도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고 붉은 펜으로 자세히 필기하도록 합니다. <자연의학과 건강>을 수강하며 알게 된 tip인데 그림으로 표시해 두면 더 잘 기억된다고 합니다. 글로써 설명하기 힘든 부분은 과감히 그림으로 표시했더니 한눈에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강의를 듣다보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직접 온라인 검색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엔 블로그, 카페 같은 곳을 통해서도 손쉽게 다양하고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학습은 수동적 자세가 아닌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 더 많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반복하여 복습하는 것입니다. 복습하지 않고는 강의시간에 아무리 열심히 들었다 해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번 반복과정을 통해서야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e-러닝 학습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시간에 쫓기는 분들이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습, 복습을 자주 하기 힘들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일 주일에 한번 그 주에 배운 내용을 한 번씩 훑어보는 것으로 복습을 마쳤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일주일에 한 번 다시 복습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반복 학습을 할수록 장기 기억이 됩니다.

여섯째, 수강 과목별로 File을 만드는 것입니다. 과목별로 강의 교안을 File로 만드신 후 주차의 핵심적인 부분을 소제목으로 목차를 만든다면 복습하시거나 내용을 색인 작업 하실 때

편리합니다.

일곱째, 긍정적 마인드를 갖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운동이나 다른 취미생활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원하는 학업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에 기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일찍이 孔子(공자)께서 學而時習之(학이시습지) 不亦說乎(불역열호),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막연히 젊은 시절 못했던 학업을 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e-러닝 학습을 통해서 저는 배우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기쁨을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감을 밑바탕으로 새로운 꿈을 갖고 도전하고픈 욕심도 생겼습니다. 졸업 후 자격증을 취득하여 청소년 상담사가 되고 기회가 된다면 대학원에도 진학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e-러닝 학습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실하게 학습해 나간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봄날을 위해 모두들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

SCU 석좌교수 일류특강

살아있는 현장지식과 마주한다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는 각 분야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을 스승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현장에서 근무하며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 입학한 학생들이 많은 만큼, 학우들의 배움에 대한 열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최고의 스승을 모시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사이버대의 특성상 온라인 강의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서울사이버대학교만의 훌륭한 강의 시스템을 일반인과 예비 입학생들이 체험해 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11년 12월부터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 ‘SCU 석좌교수 일류특강’은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수준 높은 교수진과 명강의를 오프라인에서 일반인들과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으로 호평을 받았다.

글 | 편집부



이승한 석좌교수 특강 '나라이야기와 기업이야기'

지난 겨울방학 내내 미아역에 위치한 서울사이버대학교 캠퍼스는 배움에 대한 열기로 후끈했다. 방학이면 한산한 타 대학들과 달리 서사대 측에서 마련한 ‘SCU 석좌교수 일류특강’을 듣기 위해 재학생부터 일반인, 예비 입학생들까지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 2011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월 27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특강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석좌교수 8명과 명사 4명의 릴레이 강의로 진행됐다.

12월 1일 김종운 석좌교수의 [스티브 김의 꿈, 희망, 미래 스토리]라는 강연을 시작으로, 이승한 석좌교수의 [어느 나라에 살겠습니까? 나라이야기와 기업이야기], 문옥륜 석좌교수의 [전 국민 의료보험의 당면과제와 정책 방향], 정동윤 석좌교수



한비아 특강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의 [돈 이야기-지급체계(Payment System)에 관한 법제의 변천], 이영탁 석좌교수의 [새로운 미래,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양호일 석좌교수의 [생활 속의 공간 디자인], 이시형 석좌교수의 [행복한 독종], 양병무 석좌교수의 [글로써 소통하라] 등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대표하는 인기 석좌교수 8인의 다양한 전문 강의가 이어졌다. 또한, 현대경제연구원 김주현 원장의 [2030 미래전략을 말한다.], 한비아 국제기관단체인(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 자문위원)의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정병국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문화, 소통과 공감의 코드], 서울사이버대학교 동문인 권오중 학우의 [사회복지사 권오중이 꿈꾸는 미래] 등 4인의 현직 전문가들이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명강연을 펼쳤다.

특히 두 번째 특강의 주인공인 이승한 석좌교수는 현재 친환경기업 홈플러스의 회장으로, 강연을 통해 나라와 기업의 상관관계, 상생 경영에 대해 수십 년간 기업을 이끌어온 CEO의 입장에서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비아 씨역시 국제구호팀장 시절의 생생한 현장 경험담과 함께 가치있는 인생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 특강 후에는 참석자들에게 퀴즈를 통해 대표 저서인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를 증정하여 호평을 받았다.

재학생 및 신·편입생 지원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SCU 석좌교수 일류특강’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을 염두에 둔 학생들에게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교수진과 수준 높은 강의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행사로 평가받았다. [사진]

재학생 및 신·편입생 지원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SCU 석좌교수 일류특강’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에게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교수진과 수준 높은 강의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행사로 평가받았다. [사진]

SCU ‘WAVE’ 사회봉사단 봉사활동

희망 나눔 실천하는 아름다운 물결

지난 1월 14일 창단한 서울사이버대 사회봉사단 ‘WAVE’가 첫 번째 해외봉사 활동에 나섰다. 국제개발 NGO 단체 ‘굿피플’과 함께한 ‘WAVE’의 첫 공식 활동은 4박 6일간 필리핀 필리안 마을에서 진행됐다. 피나투보산에 거주하는 소수부족인 아이따(Aeta) 족을 돕기 위한 이번 봉사활동은 서울사이버대 교양학부 권구순 교수와 휴먼서비스대학원에 재학 중인 배우 권오중 학우(사회복지전공)도 참여하여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글 | 편집부

봉사활동은 도움받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봉사하는 사람의 삶도 가치있게 만든다. 서울사이버대에도 많은 이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아름다운 물결이 생겨났다. 지난 1월 14일 서울사이버대학 전체 규모의 사회봉사단 ‘WAVE’가 창단되었다. 기존의 봉사동아리에서 나아가 체계적인 사회봉사 프로그램과 조직적인 봉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진 ‘WAVE’의 창단식은 본교 및 대구, 인천, 강원, 광주 캠퍼스 등 지역캠퍼스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사이버대학의 장점을 살려 전국 캠퍼스에서 동시에 실시간 중계되었다.

“사랑은 말보다 행동(Love is action)!”이라고 말하는 ‘WAVE’는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창단과 동시에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1월 28일, ‘굿피플 SCU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필리핀 해외 봉사 활동에 나선 것이 그 첫 번째 나눔 행보다.

재학생 25명과 교직원 2명이 함께한 이번 동행은 필리핀 클락에서도 차를 타고 한참을 더 들어가야 하는 오지, 피나투보산 아이따족 마을에서 진행됐다.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어 문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아이따족 마을에서 무료진료를 비롯해 교육, 미



희망 나눔 실천하는 아름다운 물결. 서울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에 재학 중인 배우 권오중 학우도 함께 했다.



서울사이버대 사회봉사단 ‘WAVE’가 ‘굿피플’과 함께 4박 6일간의 필리핀 봉사활동을 했다.

용, 요리, 집짓기 등의 활동을 펼친 ‘WAVE’ 사회봉사단은 4박 6일간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지난 2월 2일 귀국했다.

희망은 나누고 사랑은 더하는 이 뜻깊은 나눔 여행에는 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본교 휴먼서비스대학원에 재학 중인 배우 권오중 학우도 함께 해 ‘MBC 나누면 행복’ 프로그램에 소개되기도 했다. 현재 사회복지사로 활동 중인 권오중 학우는 “사회복지학과 전공생에게 봉사활동은 배운 것을 실천해 보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활동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한편 ‘WAVE’ 단원들의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돕기 위해 서울사이버대 교양학부 권구순 교수도 필리핀 봉사에 기여이 동참했다. 권구순 교수는 과거 ‘굿피플’ 해외사업팀장을 역임한 경험을 살려 현장에서 ‘WAVE’ 단원들에게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21세기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서의 덕목인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겠다는 목표로 재학생 100여 명 및 교직원이 힘을 모은 ‘WAVE’는 향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봉사를 계획 중이다. [사진]



희망 나눔 이벤트는 입학식과 졸업식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전통 풍경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식 및 졸업식 풍경 아쉬운 이별과 새로운 만남 내 생애 아주 특별한 졸업식과 입학식

자타가 공인하는 일류 사이버대인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입학식과 졸업식에서도 남다른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입학식은 입학생들의 꿈을 함께 키우는 이른바 ‘희망 나눔’ 입학식이다. 아울러 졸업식 또한 ‘디지털 캐리커처’를 통해 미래의 모습을 그려본다. 이처럼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인생의 중요한 지점인 입학식과 졸업식에 남다른 아이디어를 더해, 학우들의 자부심을 한층 높여가고 있다.

글 | 편집부



희망을 나누는 특별한 입학식

지난 2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사이버대학교 신일캠퍼스 실내 스타디움에서는 2012 학년도 입학식이 열렸다. 입학식은 배움의 열정을 지닌 학우들에게 본격적인 새 출발을 알리는 중요한 행사다. 올해 서울사이버대학교에 합격한 인원은 학사과정 4,221명과 석사과정 141명이다. 이색적인 입학생들도 눈에 띈다. 부동산학과 신입생 김정신 학우는 올해 69세로 서울사이버대학교 최고령 신입생이 됐다. 최연소 신입생은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황소연 학우로,

올해 18세다. 황소연 학우는 “입학식을 통해 학과의 선배와 동기들을 만나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높일 수 있었다”며, 아울러 “정보 교류에도 도움이 많이 됐다”고 전한다.

한편 이번 입학식에는 신입생들의 희망 찬 첫 걸음을 응원하고, 더욱 큰 꿈을 키워가라는 의미로 교수들을 주축으로 ‘희망 나눔’ 행사를 펼쳤다. 교수진이 직접 각 학과 대표 입학생들에게 이른바 ‘희망 화분’을 전달한 것. 아울러 입학생 전원에게는 희망과 행운의 상징인 해바라기 꽃씨를 선물로 주었다.

이 같은 희망 나눔 입학식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5년간 이어진 이번 이벤트는 교수와 신입생들이 직접 만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자, 서울사이버대학교만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훗날의 나를 그려본 졸업식

2월 18일에 있었던 학위수여식에서도 진풍경은 마찬가지였다. 이번 졸업식에는 1941년생 최고령자 졸업생과 1990년생 최연소 졸업생을 비롯한 1,964명의 학생들이 학위를 받았다. 이날 최연소 졸업생인 상담심리학과 장서영 학우는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면서 체계적인 상담교육에 대한 갈증을 느껴 서울사이버대학교를 섰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졸업 후에도 학우들이 꿈을 계속 키워갈 수 있도록 미래 자신의 모습을 담은 디지털 캐리커처 이벤트를 마련했다.

택했다”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수업을 통해 자신감을 얻어 청소년 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는 소감을 내놓았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도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졸업생들을 위한 깜짝 이벤트를 펼쳤다. 학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꿈을 이루어가게 된 졸업생들에게 태블릿PC를 이용한 ‘디지털 캐리커처’를 그려준 것. 이는 졸업생들이 가슴에 품고 있던 비전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껏 품고 있던 소망을 꼭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행됐다.

졸업생들은 꿈을 달성한 자신의 모습을 그린 디지털 캐리커처라는 뜻밖의 선물에 설레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 같은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입학식과 졸업식은 현장에 참석할 수 없는 학우들을 위해,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됐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사학위수여자 현황

2004년 9명의 첫 번째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급격히 졸업생 숫자가 늘어나 한해 2천여 명의 학사학위 수여자를 배출하고 있다. 2011년까지의 통계 기준으로 학사학위 수여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학과는 사회복지학과로 4,281명의 학생들이 학위를 받았으며, 상담심리학과는 2,019명이 학위를 받았다. 다음으로는 부동산학도가 1,286명의 학생들이 학위를 취득했다. 다른 학과들 역시 신생학과를 제외하고는 수백명 이상의 학사학위 수여자가 배출됨으로써 현재 1만여 명 이상의 서울사이버대학교 동문이 사회 곳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2012년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구성원들은?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 재학생들은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의 비율이 가장 높다. 하지만 20대 역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 및 경기·인천도 지역 학우들이 많은 편이다. 전반적으로 전국에 재학생들이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아울러 직업별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야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와 사무종사자이다. 다른 직업 없이 학업에만 몰두하는 비율도 20% 가까이 달했다. 군인이나 관리자, 서비스업, 기능원 및 기능종사자 등 직업별로도 매우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학우들이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재학 중이다.



SCU & 경찰

차별화된 상담 역량 강화로 경찰의 힘 키운다

서울사이버대학교 군경상담학과에 입학하는 경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치안이 안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경찰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군경상담학은 경찰의 신뢰도를 높이는 하나의 해법이 되고 있다. 국내 최초로 4년제 대학에 개설된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군경상담학과는 훌륭한 콘텐츠와 많은 사례를 갖고 있어 현업에서 활동하는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글 | 편집부

군경상담학으로 경찰 신뢰도 높이다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 군경상담학과와 MOU를 체결한 경찰 기관은 서울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 중앙경찰학교, 101경비단, 밀양경찰서, 남해경찰서, 창원서부경찰서 등 일곱 곳이다. 이와 함께 대전서부경찰서가 올봄 MOU 체결을 앞두고 있고, 경찰 기관과

별도로 해양경찰청 역시 지난 2011년 11월에 협약을 맺었다.

군경상담학에 대한 경찰의 관심은 꾸준히 늘다가 올 들어 군경상담학과에 입학한 경찰의 숫자가 부쩍 늘어났다. 협약을 맺은 기관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입학생 숫자가 폭증한 것은 군경상담학과의 필요성을 경찰 내부에서도 인지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실제로 2008년에 13명의 경찰이 군경상담학과에 입학한 이후, 2009년에 5명, 2010년 12명, 2011년 19명이 입학한 데 이어 올 2012년에는 78명의 경찰이 군경상담학과에 입학했다.

경찰들이 군경상담학과에 입학하는 이유는 경찰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을 상담학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경상담학과 이명규 석좌교수는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치안이 안정되어야 하고, 치안이 안정되려면 국민들이 경찰을 신뢰해야 한다”며, 아울러 전·의경 내에서 간혹 일어나는 구타 및 자



상담학이 경찰 역량 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했던 이명규 석좌교수, 이인선 경무국장, 이정원 교수(사진 왼쪽부터).

살 등의 예방책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경찰 개개인의 인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처벌만으로 경찰관의 인성을 관리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사람 관리는 규정과 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까닭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경찰관 인성관리

대다수 경찰들이 전력을 다해 자신의 업무에 충실해도 한두 사람의 인성 부족으로 인해 명예가 손상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채용에서부터 교육, 배치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경찰관의 인성 관리를 통해 각자에게 적합한 업무를 발굴하고, 한편으로 문제 성향을 지닌 사람들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경상담학과 이정원 교수는 “경찰직 특성상 민생치안을 비롯한 범죄자나 치안 사범을 다루는데다 경찰직 수행과정에 대한 일반인들의 기대수준이 높기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며, “경찰관의 사기 진작을 위한 상담기술과 직무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상담기술을 비롯한 관련 지식은 업무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직무 스트레스 관리는 물론이고, 민원에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으며, 긴급한 112 신고접수 처리 능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 또, 심리수사나 피의자 관리, 피해자 보호 등 수사 역량 발전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감정적으로 섬세한 여성이나 청소년과 연관된 범죄를 다룰 때에도 상담 역량의 필요성은 증가하며, 경찰 안에서도 상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경찰의 역량 강화 위한 발걸음

서울사이버대학교 군경상담학과 진학한 경찰들에게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졸업 후에는 학사학위와 경찰상담사 자격증을 받게 된다. 자격이 있는 경찰 인력이

Mini Interview 경찰청 이인선 경무국장

자기 계발 위해 최선 다하는 경찰들에게 큰 박수를

경찰대학교 1기 출신인 이인선 경무국장은 엘리트 경찰의 표본이다. 그는 전국의 여러 경찰 기관들이 서울사이버대학교 군경상담학과와 MOU를 맺고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다.

“사실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구나 업무를 위해서 공부하는 분들은 그 자체로 박수를 받을 분들이지요. 그런 역량이 모여서 경찰이 발전하는 것이니까요.”

때문에 이인선 경무국장은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공부에도 때가 있다”고 말하곤 한다. 주어진 기회가 지나가면 나중에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군경상담학이 경찰 역량을 높인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고 있다.

“상대방을 어떻게 배려하고, 마음을 열게 하는지가 상담의 기본이고 기초 아니겠습니까. 경찰 업무가 바로 그런 일들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상담 지식이 동료는 물론이고 가족 관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경찰 조직 내에서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직자 적성 검사 결과에 바탕을 둔 상담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인선 경무국장. 경찰 조직 안팎에서 요구되는 상담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서울사이버대학교 군경상담학과를 통해 배출되기를 기다린다.



직접 나서는 상담이 어려울 경우라면 군경상담학과를 졸업한 민간 상담관을 배치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MOU 체결을 한 경찰 기관 소속 경찰관은 입학금 면제 및 30~50% 가량의 수업료 감면과 같은 장학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찰서 소속 임직원 가운데 교수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외래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군경상담학과는 인성 검사, 초빙 교육, 심층 상담 등의 경찰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학내에서의 경찰 교육 기회 확대 및 전문가 양성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교육기관을 통한 경찰상담학 기초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 군경상담학과와 경찰의 MOU 체결을 통해 시작된 아름다운 동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CONCERT

강수진 &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까멜리아 레이디 (LADY OF THE CAMELLIAS)

발레가 만들어내는 드라마, 상상 그 이상의 감동

글 | 이의신 교수(문화예술경영학과 학과장)

2002년 세종문화회관 내한공연 당시 전석 매진의 기록을 세우며 국내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은 바 있는 슈투트가르트 발레단과 발레리나 강수진의 「까멜리아 레이디」가 10년 만에 드디어 한국을 찾아 과거의 감동을 다시 재현해 낸다.



영상을 남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이 발레단의 특성상 2002년 한국 공연이후 사진이나 나쁜 화질의 연상 영상, 구전으로만 전해 들으며 많은 사람들을 애타게 했던 작품. 특히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을 동양인 최초로 무용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브누아드라당스(Benois de la Danse)상의 영광을 안겨준 작품으로, 한국에서 선보이는 마지막 전막 「까멜리아 레이디」라니 더욱 조바심이 난다. 1978년 안무가 존 노이마이어(John Neumeier)와 슈튜트가르트 발레단(Stuttgart Ballet)에 의해 초연되었고, 등장인물의 이름은 다르지만 뒤마의 소설을 발레로 만든 작품으로 오페라 “춘희(라 트라비아타)”와 같은 내용인 3막의 발레작품이다. 음악은 쇼팽의 피아노곡들로 슬픈 사랑을 섬세하고 감동적

으로 이끌어낸다. 「까멜리아 레이디」는 고전 발레의 테크닉을 사용하고 있지만 기교를 내세우기보다 극적인 감동을 중시하는 ‘드라마 발레’의 걸작이다.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하던 고급 매춘부 마르그리트가 순진한 청년 아르망과 만나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지지만, 아르망의 아버지가 이들의 사랑을 가로막아 둘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 결국 점점 멀어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연극처럼 진행되는 이런 발레가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마르그리트가 아르망의 아버지 무슈 듀발의 설득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을 희생하여 아르망 곁을 떠나는 장면쯤에 이르러서는, 발레의 정교하고 세련된 표현력에 놀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쇼팽의 음악이 이처럼 아련하게 심장을 파고들며 요동치게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도 실감하게 될 것이다. 발레가 만들어내는 드라마, 상상 그 이상의 감동을 기대해도 좋다.

- 일 시 : 2012년 6월 16일~17일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출 연 : 슈투트가르트 발레단(Stuttgart Ballet)
강수진 (Marguerite Gauthier역)
마레인 라데마케르 (Armand Duval역)
- 연 주 :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 안 무 : 존 노이마이어(John Neumeier)
- 원 작 : 알렉산더 뒤마(Alexandre Dumas)
- 음 악 : 프레데릭 쇼팽(Frederic Chopin)
- 무대의상 : 위르겐 로제(Jurgen rose)
- 초 연 : 1978. 11. 4. Stuttgart

MUSICAL

뮤지컬 위키드
오즈의 마법사, 기발하게 뒤집다

뮤지컬 〈위키드〉는 고전 ‘오즈의 마법사’를 오즈 땅의 마녀들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그레고리 맥과이어의 소설 〈괴상한 서쪽마녀의 삶과 시간〉을 뮤지컬로 옮긴 작품이다. 〈위키드〉는 브로드웨이 초연 이후 9년 동안 박스오피스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브로드웨이를 대표하는 흥행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25억달러(3조원)의 매출기록을 세웠으며, 3,000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공연을 관람했다. 북미투어에 이어 영국의 웨스트엔드, 일본과 독일 모두 새로운 박스오피스 기록을 세웠고, 최근 3년간 진행된 호주 투어 공연에서는 호주 국민 20명당 1명 이상이 관람하는 호주 역사상 최대 관객, 최고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 기간 : 2012. 5. 31 ~ 6. 30
- 장소 : 블루스퀘어 삼성전자를

NETIQUETTE

인터넷상의 새로운 감정 표현법,
이모티콘(그림말)

온라인상에서 우리의 표정과 마음을 대신하는 게 바로 이모티콘(emoticon, 순화 용어: 그림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모티콘은 컴퓨터 자판으로 칠 수 있는 문자를 이용하여 만들어낸 감정을 표시하는 기호들을 일컫는다. 국가마다 컴퓨터 자판으로 칠 수 있는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이 말은 영어의 emotion(감정)과 icon(아이콘)을 합쳐서 만들어진 말이며, 처음 유행한 이모티콘이 웃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스마일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모티콘은 그 형태의 다양성이나 그에 대한 인식이 10대나 20대의 젊은 층에 국한되어진 신 커뮤니케이션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나, 그 추세는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모양을 만들어 서로 웃고 즐기는 인스턴트식의 디자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모티콘 수신자와 친밀한 사이가 아닌 경우, 지나치게 발랄한 이모티콘의 남발은 사투 거부감을 일으킨다.

이모티콘 감정	또아 ^_^oo	황당 (?_?)	화나 ('_')	추위 {(O_O)}	코파 -_-	후다닥 (OO_ _ _)
한잔 (^^)U☆U (^^)	슬퍼 TmT	졸려 (Z_Z)	영영 TT.TT	인사 (^_^)	정말사랑해 *♥o♥*	함박 (=^=)

숨은 그림 찾기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2월 18일 2012학위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여러 역경들을 겪으며 지금의 아름다운 순간을 만든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날 소중한 장면 속에 담긴 숨은 그림을 찾아 올려주시면 정답을 맞힌 분을 추천하여 상품권을 지급해 드립니다. 정답은 서울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홈-대학생활-이벤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숨은 그림 찾기
숨은 그림 : 모자, 빗자루, 야구방망이, 식칼, 바늘, 조개, 리본



〈그림 : 예린〉

■ 2011 겨울호 당첨자 & 한마디

황규진 : 각 학과마다 자기 진로에 성공한 사례와 함께 대학원 진학을 위한 준비사항을 제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희선 : 이미 성공한 사람보다 서서대에 입학하여 공부하고 졸업해서 새로운 분야든 자신의 분야든 더 성공적인 직업 활동을 하게 된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가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우대순 : 선배와의 대화가 아주 좋은 내용이었습다. 유익하기도 했구요. 졸업선배들이 어디서 근무하며, 어떤 직종에서 자신의 전공을 살리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가 아주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편입생으로서 짧은 시간에 학교 적응이 어려운데, 이에 대한 극복 노하우도 심도있게 실어주었으면 합니다.

인윤주 : 학우님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책을 받을 때마다 즐겁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담아주세요. 학우님들의 취업 후의 이야기들과 삶, 대학생활에서의 조언들을 듣고 싶습니다.

인향란 : 이번에 입학하는 신입생입니다.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보면서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있는데... 유익한 정보도 많고 설레기도 합니다. 많은 이벤트가 기다려집니다.

조성완 : 소식지를 통해 학교소식을 접하고 있는데요. 개인별 메일로 e-소식지를 보내링크) 줬으면 합니다.

최진규 : 항상 좋은 내용을 다뤄주셔서 감사하고, 더욱 더 좋은 내용 부탁드려요. 사람이 살아가는 진실된 모습을 더욱 보고 싶어집니다.

BOOK

교양학부 권구순 교수 추천
빈곤의 덫 걷어차기

1960년대 이래로 유엔을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들과 서구의 원조 공여국들이 글로벌 빈곤 퇴치를 위해 많은 자원과 노력을 경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70억명의 지구촌 인구 중 절반은 하루 2.5달러 미만으로 고단한 삶을 연명해 가고 있다. 이러한 빈곤문제해결을 위해 한쪽에서는 선진국들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은 기존 원조의 무용론과 함께 소규모의 신속한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논쟁적 담론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면서 ‘행동경제학’ 이론을 도입, 글로벌 부의 불균형 해소와 빈곤을 경감시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가나, 필리핀, 인도 등지에서 추진된 빈곤 경감 프로젝트의 모니터링과 평가에 있어 실증적인 무작위대조실험(Randomized Control Trials)을 실시함으로써 원조프로젝트에서 야기되는 많은 실수와 신화적 오류를 개선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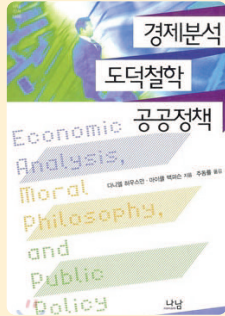
- Dean Karlan, Jacob Appel 지음, 신현규 옮김, 청림



사회복지학과 임세희 교수 추천
경제분석
도덕철학 공공정책

이 책은 논증과 다수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도덕철학에 대한 이해가 경제분석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도덕철학이 경제학자의 분석적 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경제분석과 도덕철학이 함께 공공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1부는 합리성 자체의 본성과 합리성과 도덕의 연관을 탐구한다. 2부는 복지, 공리주의, 표준적 복지경제학을 다루고, 3부는 자유, 권리, 평등, 정의와 같이 표준적 복지경제학에서 간과되는 중요한 도덕적 개념들을 논의한다. 3부는 또한 정책평가에 관련된 다양한 도덕적 고려사항들에 주목한다. 4부는 윤리적 개념들에 의해 인도되고 도덕철학의 이론적 작업에 관련되는, 사회선택 이론과 게임이론의 전문적 작업의 일부를 소개한다.

- 다니엘 하우스만, 마이클 맥퍼슨 지음, 주동률 엮음, 나남



SCU COLLEGE SYSTEM SCU 학사제도 해설 시리즈 4

리포트 작성법이 궁금해요

글 | 남상규 교무부처장

이번 호에서는 신학기를 맞이하여 신입생들에게 유용한 리포트 작성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각 교과목에서 교수님이 출제하는 과제는 대부분이 리포트(보고서)입니다. 리포트는 제시된 주제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한 설명문을 말합니다. 즉 교수가 제시한 주제에 대해 조사하고,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전개시키는 글입니다. 일부 학생들은 리포트를 작성할 때 자신의 논리가 없이 단순히 인용만 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에서 구한 타인의 생각을 그대로 옮겨 적기도 하고, 심지어 리포트 거래 사이트에서 리포트를 구입하여 이름만 바꿔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등교육과정의 대학생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부끄러운 행위입니다. 일반적인 전달형 수업과 암기 위주의 낡은 학습법으로는 비판적 사고력의 형성과 새로운 지식 창출에 한계가 있으며 리포트 작성, 토론 등은 이를 극복하는 좋은 학습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을 반영하여 리포트를 작성하는 일을 번거롭게 생각하지 말고 이를 준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수님들이 가장 읽고 싶은 바람직한 리포트는 학생의 생각과 경험이 진솔하게 담겨 있는 리포트라고 합니다. 다음에 제시하는 보고서 작성 방법을 숙지하고 틈틈이 써보는 훈련을 반복한다면 리포트 작성 기량이 늘 것으로 기대합니다.

리포트 작성하기

1. 리포트란?

대학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문서로 제출하기를 요구하는 과제를 통칭합니다.

2. 리포트의 유형

- 에세이: 개인적인 경험, 생각, 감상 등을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으로 서술합니다.
- 소논문: 한 가지 연구 주제에 대해 적합한 연구 방법을 활용해 탐구하고 결과를 논의합니다.
- 조사·실험·관찰 보고서: 특정 주제에 대한 조사·관찰·실험 과정과 결과를 보고합니다.

3. 리포트 작성 과정

- 1) 주제 선정: 주제는 학생이 스스로 고민해 결정해야 할 때도 있고 교수님이 제시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 2) 1차 자료 수집
 - ▶ 자신이 쓰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 있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 주제어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검색합니다.

- 해당 분야 권위자의 자료,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자료, 최신 자료 등을 충분히 수집합니다.
 - 분석하고 인용할 자료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제외할 자료를 분류합니다.
 - 자료의 출처를 밝힐 수 있도록 수집한 자료에 서지 정보를 적어둡니다.
- ▶ 검색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는 읽어 봅니다.
- ▶ 자료의 유형
- 문헌: 단행본, 석·박사 논문, 학술지 등이 있습니다.
 - 신문, 잡지: 평소에 관심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스크랩 해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국내외 포털 사이트, 국회도서관 사이트, RISS, DBPIA, Google Scholar 등을 검색해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계획 수립

- ▶ 개요 작성: 리포트에 포함할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제목을 붙여 봅니다.
- ▶ 목차 구성: 목차를 체계적·논리적으로 구조화합니다.
- ▶ 시간 계획: 충분한 시간 동안 과제를 할 수 있도록 일정계획을 세웁니다.

4) 문헌 분석

- ▶ 수집한 문서자료를 분석, 정리합니다.
- ▶ 필요시 조사, 관찰, 실험 연구를 수행합니다.
- 5) 리포트 작성하기
- ▶ 자료 분석 결과를 활용해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서술합니다.
- ▶ 필요시 목차수정, 추가 자료 수집 등을 합니다.
- ▶ 분량은 교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4. 유의 사항

리포트를 쓸 때에는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도 중요합니다.

- 1) 표지: 리포트 제목, 과목명, 담당 교수님, 제출자 소속, 학번, 성명, 제출일 등을 기재합니다.
- 2) 목차: 본문의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3) 표·그림
 - ▶ 경향 파악 또는 결과 비교 등을 할 때에 표와 그래프를 활용하면 효율적입니다.
 - ▶ 표와 그림에는 제목을 붙입니다. (표 제목은 표의 상단에, 그림 제목은 그림의 상단 또는 하단에 위치)
 - ▶ 표와 그림에 대한 설명을 포함합니다.

4) 인용: 직접 인용 보다는 '바꿔 쓰기' 나 '요약하기'를 통해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좋은 글쓰기 방법입니다. 읽은 내용을 이와 같이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해와 해석이 필요합니다.

▶ 인용의 조건

- 주제와의 관련성, 본문과의 조화를 고려합니다.
-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인용합니다.
- 인용의 근거를 분명히 밝힙니다.
- 본인이 직접 읽은 내용을 활용합니다.
- 일관성 있게 기술합니다.
- 본문과 참고문헌에 출처를 밝힙니다.

▶ 표기

- 직접 인용
 - 인용문을 원형 그대로 본문에 삽입합니다.
 - ""로 표시한다. 만약 4줄 이상일 경우에는 한 줄 띄우고 본문보다 약간 작은 글씨로 단락을 삽입합니다.
 - 간접 인용
 - 인용문을 본문에 맞게 요약 또는 정리하여 삽입합니다.
 - 다른 사람이 인용한 내용을 다시 인용할 때에는 재인용이라고 밝힙니다.
- (예. Durkheim, 1893 : 137을 인용한 그림, 1994 : 125에서 재인용)

※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고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표절에 해당합니다.

5. Check List

- ▶ 리포트를 제출하기 전에 다음의 항목을 확인해봅니다.

질 문	확인
제목이 리포트의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
처음에 생각한 주제를 벗어나지는 않았는가?	☐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되었는가?	☐
내용이 논리적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
문맥이 부드럽게 연결되고 있는가?	☐
오타는 없는가?	☐
띄어쓰기는 바르게 되어 있는가?	☐
인용표기 및 참고문헌 양식이 바르게 되어있는가?	☐
제목 크기, 줄 간격, 번호체계 등이 일관성 있게 편집되어 있는가?	☐

※ 출처: 세종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HOT
ISSUE

SCU 분당캠퍼스 개관식

지역학생들, 오프라인 교육서비스 직접 가능



서울사이버대학교는 4월 14일(토) 오후 3시, 지역에 거주하는 재학생들에게 질 높은 오프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8번째 지역캠퍼스인 '분당캠퍼스'를 개관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200여명의 교수 및 재학생이 참여하였다. 지난 몇 년간 경기·동부 지역의 재학생 활동과 인원, 지리적 위치 등을 파악해 설립된 '분당캠퍼스'는 재학생들에게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대학의 낭만과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현재 지역에 거주하는 재학생들에게 질 높은 오프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교 캠퍼스와 별도로 경기, 강원, 충남, 대구, 광주, 부산, 인천에 지역캠퍼스를 운영 중이며, 분당캠퍼스가 개관함에 따라 전국 8곳에 고루 위치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캠퍼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학생들이 오프라인 특강, 세미나 등 본교의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가까운 지역 내에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오프라인 캠퍼스는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명사 특강 등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재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4월 14일 8번째 지역캠퍼스인 분당캠퍼스 개관식을 가졌다.

■ 러시아 우랄연방대학교 MOU체결



이 넘는 재학생 규모의 우랄연방대학교는 러시아 초대 대통령 보리스 옐친이 졸업한 대학으로 유명하며, 90년 전통의 러시아 최고의 자연과학, 기술, 사회과학, 인문 및 경제학 등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이다. 정부 소유의 국립대학으로 120개의 학사 학위 프로그램과 80개의 석사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수 십 개의 리서치 센터, 혁신 기간시설, 300만권이 넘는 도서를 확보하고 있는 연구 도서관 및 유명 박물관 등을 갖춘 세계적인 대학교이다.

■ 제4회 서울사이버디자인대전 개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21세기형 컴퓨터그래픽 디자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제4회 2011서울사이버디자인대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감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개성화와 전문화, 다양화를 추구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응모분야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부문 ▲시각 디자인 부문 ▲사진부문 등 총 3개 부문이었다. 시상식은 지난 12월 10일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열렸으며, 대상을 비롯한 수상작들은 총 1,500만원의 상금을 수여 받았다. 특히 특선 이상 수상작은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북서울 꿈의숲 아트센터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 웹디자인을 위한 타이포그래피 세미나 개최



가 되었다. 이번 세미나를 위해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제반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산돌커뮤니케이션은 폰트클럽(www.fontclub.co.kr)의 노하우와 인프라를 제공하였다. 디자인을 통한 나눔이라는 취지에 맞는 재능기부형 세미나인 것이다. 한편 수익금 전액은 서울사이버대학교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사)굿피플 인터내셔널(www.goodpeople.or.kr)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파나투보 화산의 최대 피해자인 필리핀 소수종족 아이따족을 위한 해비타트 활동에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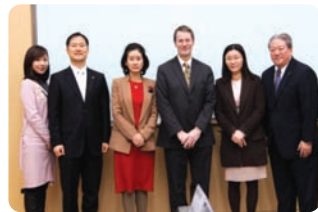
■ 2012 신년 문화행사 개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2012년 임진년을 맞이하여 신년문화행사를 개최했다. 1월 7, 8일 이틀에 걸쳐 충무아트홀에서 재학생, 졸업생 및 신편입생 지원자 총 1,100여 명이 뮤지컬 '미녀는 괴로워'를 관람했다. 2005년부터 매년 시행해온 서울사이버대학교 문화행사는 직장인과 학업 병행으로 문화행사를 즐기기 어려운 재학생들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지금까지 1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오페라, 뮤지컬, 발레, 성악 등 평소 경험하기 어려운 문화공연의 기회를 제공해왔다.



■ 런던대학교 Director Tim Gore 방문

세계적인 명문대 런던대학교 원격교육기관 (University of London External System)의 국제 교류 협력 책임자인 Tim Gore 씨가 1월 18일 본교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런던대학교와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원격교육 (TNE distance/flexible learning)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양교의 활발한 교류가 기대된다. 런던대학교는 영국 최대의 공립 종합대학으로 1936년에 설립되었으며 19개의 칼리지(college)와 9개의 인스티튜트(institute)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은 영국 최고의 교육 중심지로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 영국의 기업조사에 따르면, 런던대학교 학위는 TOP3를 차지했다.



■ 신입생 1박 2일 오리엔테이션 실시

지난해 사이버대학으로 처음 1박 2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해 화제를 모은 서울사이버대학교가 2월 11일부터 12일까지 다시 1박2일 일정으로 충남 천안에 위치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2012학년도 전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국내 최초로 설립된 사이버대학교인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이미 1만여 명의 졸업자를 배출했으며, 올해부터는 사이버대학 중 가장 많은 입학정원(3,200명)을 선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이처럼 폭넓은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신·편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학습능률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학사제도 안내 및 학과 교수님과의 만남, 동문 선배들과의 교류, 학과 및 지역별 만남의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참가자들에게는 대학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폭넓은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2011학년도 2학기 우수교원 시상식 개최



2011학년도 2학기 우수교원 시상식이 3월 3일 본교 교수연구동에서 개최되었다. 우수교원 시상식은 외래교원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교수자들에게 긍정적인 동기부여 및 우수한 강사의 수업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수업의 질적 향상을 극대화하고자 2007학년도 1학기부터 매학기 실시되고 있다. 2011학년도 2학기 '우수교원 시상식'에서 부동산학과 김명규 교수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우수상은 노인복지학과 민복기 교수,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박선미 교수, 장려상은 복지시설경영학과 배승룡 교수, 교양학부 김지영 교수, 교양학부 이선영 교수가 수상하였다.

■ 방글라데시 개방대학 본교 방문



방글라데시 개방대학 Bangladesh Open University의 역량강화사업 관계자들이 한국의 우수한 사이버대학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3월 20일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주최의 '방글라데시 Open University e-Learning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방글라데시의 개방대학 관계자들은 일방향적인 아날로그 교육체제를 쌍방향 교육매체 및 디지털 이러닝 교육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서울사이버대학을 찾았다.

■ 韓-아세안 사이버대학교 추진...주관대학에 서울사이버대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한-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 프로젝트 추진 주관대학으로 선정되었다. 한-아세안 사이버대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을 아우르는 사이버대학교다. 해당 국가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학점과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세계 최초 국가 간 연합대학인 것이다. 지난 2009년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합의돼 2015년 설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한국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4개국에 e러닝 기술과 방법 운영 콘텐츠 등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한국의 축적된 기술력과 콘텐츠를 전달해 한국과 공동으로 e러닝 고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 지하철 역명까지 '서울사이버대학'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토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캠퍼스투어는 사이버대학 선택을 고민하는 지원자들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지원자들이 학교를 방문해 꼼꼼히 비교해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기회다. 지역적, 개인적 사정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엔 10인 이상의 단체가 신청하면 학교 측에서 직접 학생들을 찾아가 학교 소개 및 입학, 학습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더불어 관련 학과 전임교수의 특강까지 제공하고 있다. 학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국내 최대 규모 캠퍼스를 자랑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된 학생서비스다. 캠퍼스투어를 위해 도착한 지하철 4호선 미아역. 내려자마자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위상을 느낄 수 있다. 사이버대학 중 유일하게 역명(미아·서울사이버대학)을 보유한 곳이 바로 서울사이버대학교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캠퍼스 인프라는 이미 국내 사이버대학 중 최고를 자랑한다. 최대 규모의 독립 인텔리전트 캠퍼스는 온-오프라인 복합 캠퍼스의 기준으로 완벽한 U-캠퍼스를 실현하고 있다. 본교뿐 아니라 경기, 인천, 강원, 부산, 호남, 대구, 울산 등 전국에 지역캠퍼스까지 있는 대학은 서울사이버대학교 단 한 곳 뿐이다.



■ '기업시민정신과 글로벌 사회공헌' 특강 수료식



작년 11월부터 13주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 저녁에 진행된 '기업시민정신과 글로벌 사회공헌' 특강이 2월 8일 수료식을 가졌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의 전·현직 CEO들을 강사로 초청하여 최근 기업의 내·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사회와 환경에 대해 보다 책임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등 일련의 기업시민 활동에 초점을 맞춰 실시되었다. 이날 40명의 수료생을 대표하여 노인복지학과 4학년 한혜선 씨가 대표로 수료증을 받았다.

■ 지원자 대상 예비학교 개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입학 전까지 3개월간 200만원 상당의 교양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예비대학 프로그램은 이보영과 함께하는 '뉴 이보영의 패턴화화 120 집중훈련'을 비롯한 외국어 과정과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아래한글 등 컴퓨터 사무자동화(OS) 과정, 즐거운 직장생활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삼국지 경영전략에 답하다 경영학 과정 등 총 17가지로 구성돼 있다. 이 외에도 영화와 함께 문학즐기기, 세계미술기행 등의 교양과목도 제공된다.

■ 사회복지학 석사과정 홈페이지,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과정 홈페이지(http://gwelfare.iscu.ac.kr)가 2012년 2월 웹접근성 인증마크인 WA인증마크(Web Accessibility Certification)를 획득하였다. 인증마크는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웹접근성 인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인증되는 웹 접근성 품질마크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는 웹에서 장애인이 차별없이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요홈페이지에 대한 웹접근성 개선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전국노래자랑 본교 개최

매주 일요일 오후 안방극장을 사로잡아온 대한민국의 대표 인기 프로그램인 'KBS 전국노래자랑'이 1월 28일 서울사이버대학교(신일중고등학교)에서 개최되었다. 'KBS 전국노래자랑-강북구편'은 지난 2002년 개최 이후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것으로, 800여 팀의 예선 출전팀 가운데 선정된 20여 팀의 시민가수들이 최우수상의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본 공연은 2월 5일 일요일 오후 12시 10분 KBS 1TV를 통해 전국에 방송되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부총장 및 신입 보직교수

SCU 미래 이끄는 봄빛 리더십

2012년을 맞아 서울사이버대학교를 이끌어갈 리더십이 새롭게 재편됐다. 강 인 부총장, 허요연 부총장을 비롯해 이은주 교무처장, 이성태 학생처장, 윤경목 산학협력단장, 구희정 도서관장, 박기훈 휴먼서비스대학원 주임교수, 김 환 상담심리대학원 주임교수, 오수연 총무처장 등이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요직에서 새롭게 활동한다. 화사한 봄꽃처럼 만개한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미래를 열어갈 부총장과 신입 보직교수진을 소개한다.

글 | 편집부



강 인 부총장

- 이화여자대학교 노년학박사
- 이화여자대학교 노인복지 BK21 Post Doc. 역임
- 한국케어복지학회, 한국케어매니지먼트학회 이사
- 한국가족관계학회 이사, 대안가정학회 이사
- UN NGO 한국은퇴자협회 선임전문위원



허요연 부총장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박사
- 임상심리전문가·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임상심리전문가 및 수련감독자
- Emory University 심리학과 부부, 가족치료 연수 및 연구
- 성균관대학교 아동교육연구단 Post Doc.
- 청와대 경호처 심리상담 자문위원



이은주 교무처장

-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사회학박사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수료
-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사회이론학회 정회원
- 서울사이버대학교 특성화추진단장 겸직



이성태 학생처장

- 조선대학교 이학박사
-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 서울시 정보화사업추진위원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기술개발관리단 평가위원
- KSDT 이사, KIPS, KSII, KOCON 정회원



윤경목 산학협력단장

-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박사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전공 (MBA)
- 미국 Stevens Institute of Technology, Computer Science 석사
- 강북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



구희정 도서관장

- 중앙대학교 유아교육학박사
- 인천전문대학, 경인여대, 중앙대 등 외래교수
- 한국유아교육학회, 영유아교육학회,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정회원



박기훈 휴먼서비스대학원 주임교수

- 京都大学 인간·환경학박사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분과 실행위원
- 서울중랑노인복지관 자문위원
- 서울중로시니어클럽 운영위원



김 환 상담심리대학원 주임교수

- 서울대학교 심리학박사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임상심리학회)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보건복지부)
- 서울임상심리연구소 소장 역임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오수연 총무처장

- 경희대학교 영어영문학과
- 신일기업(주) 비서실 부장
- 서울사이버대학교 비서실장
- 서울사이버대학교 총무처장

교수 동 정

■ 고윤승 교수, 소비자 특성에 대한 논문 게재



경영학과 고윤승 교수는, 과학문화 전시디자인연구소에서 12월 22일 출간한 학회지에 '친환경상품에 대한 그린소비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을 게재하였다.

■ 권금주 교수, 노인복지 관련 논문 게재



복지시설경영학과 권금주 교수는, 한국노인복지학회에서 12월 31일 출간한 학회지에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발전방향 인식 연구'에 대한 논문을 게재하였다.

■ 김미주 교수, 한국학교보건학회 편집위원장 위촉 및 노인복지 관련 논문 게재



보건행정학과 김미주 교수는, 한국노인복지학회에서 12월 30일 출간한 학회지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창설과정의 논의에 대한 소고' 논문을 게재하였다. 또한 한국학교보건학회의 편집위원장으로 위촉되어 2년간 학술지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출간을 책임질 예정이다.

■ 김선정 교수, 『지방자치행정론』 출간



법무행정학과 김선정 교수는, 3월 2일 『지방자치행정론』(한국학술정보)를 출간하였다.

■ 김영민 교수, 독일 물류시스템 대한 논문 게재



국제무역물류학과 김영민 교수는, 한국국제상학회에서 12월 31일 출간한 학회지에 '독일 물류시스템의 특수성과 물류정책동향에 관한 고찰'에 대한 논문을 게재하였다.

■ 김윤나 교수, 논문 게재와 가이드북 출간



사회복지학과 김윤나 교수는, 한국청소년학회에서 12월 30일 출간한 학회지에 '비진학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실태와 정책방안'에 대한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2월 15일 『사회복지현장실습 가이드북』(신정)을 출간하였다.

■ 김현아 교수, 원격 교육 학습에 대한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김현아 교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원격교육연구소에서 12월 31일 출간한 학회지에, '원격교육 성인학습자의 학업성취도와 학업지속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논문을 게재하였다.

■ 김현진 교수, 온라인 협동학습 대한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김현진 교수는, 한국방송통신대 원격교육연구소에서 12월 31일 출간한 학회지에 '원격교육 성인학습자의 학업성취도와 학업지속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 대한 논문을 게재했으며 SUC 미래사회연구소에서 출간한 학회지에 '직소전략을 활용한 사이버대학 온라인 협동학습 활동개발 및 효과분석'에 대한 논문을 게재하였다.

■ 박병석 교수, 중문 연구서 저술



국제무역물류학과 박병석 교수는, 저서 『中國古代朝代更迭：易姓革命의思想, 正當化以及正當性研究』를 上海 同濟大學 出版社를 통해 출판하였다.

■ 오창환 교수, 『유비쿼터스 이해』 출간



컴퓨터정보통신학과 오창환 교수는, 2월 28일 『유비쿼터스 이해』(한국학술정보)를 출간하였다.

■ 이서영 교수, 『최신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과 과제』 출간



노인복지학과 이서영 교수는, 2월 3일 『최신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과 과제』(노인연구정보센터)를 공동 출간하였다.

■ 이우경 교수, 정신의학 관련 논문게재 및 저서 출간



상담심리학과 이우경 교수는, 2011년 12월, '마음챙김 명상과 자비명상을 결합한 프로그램이 입원한 조현병(정신분열병) 환자들의 증상 상태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사회정신의학학회에 게재하였으며, 올 2월 25일 『심리 평가의 최신 흐름』(학지사)을 출간하였다.

■ 이자영 교수, 대학생의 직업스트레스에 대한 논문 게재



군경상담학과 이자영 교수는, National Career Development Association (NCDA)에서 12월 30일 출간한 학회지에 'The Development and Initial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Korean Career Stress Inventory for College Students'에 대한 논문을 게재하였다. 또한 한국교육방법협회에서 2월 29일 출간한 학회지에 '한국형 학업열의척도의 개발 및 타당도'에 대한 논문을 게재하였다.

■ 이향아 교수, 『아이디어 발상』 출간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이향아 교수는, 2월 25일 『아이디어발상』(도서출판 일컴)을 출간하였다.

■ 임태순 교수, 『재무관리의 이해』 및 3권 출간



금융보험학과 임태순 교수는 2월과 3월에 『재무관리의 이해』(제3판)(법문사), 『경영학의 이해』(한국학술정보)와 에세이집 『행복이 머무는 강학 이야기』(이담북스)를 출간하였다.

■ 전호진 교수, 세계 경제 관련 논문 게재



금융보험학과 전호진 교수는, 12월 31일 한국동북아경제협회에서 출간한 학회지에 '러시아 신용위험이 ADR 가격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을 게재하였다.

■ 차명희 교수, 기능성 게임에 대한 논문 게재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차명희 교수는, 12월 30일 한국컴퓨터게임학회에서 출간한 학회지에 '기능성 게임개발-테이블 축구'에 대한 논문을 게재하였다.

■ 채정민 교수,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오해심리학』 출간



상담심리학과 채정민 교수, 12월 30일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오해심리학』(학지사)을 출간하였다.



온라인 석사 교육의 리더 ... 휴먼서비스대학원 & 상담심리대학원

최고의 선택, 세상을 가치있게 만드는 교육

사회적·심리적 만족도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휴먼서비스대학원(사회서비스전공)’ 및 ‘상담심리대학원(상담심리전공)’을 설립,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국내 최초로 국제 이러닝 표준 개발 컨소시엄(IMS Global Learning Consortium)의 정식회원사인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대학원 학습체계의 표준규격을 IMS Common Cartridge로 채택해 ‘차세대 교수학습의 리더’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글 | 편집부



휴먼서비스대학원 온라인대학 최초로 개설된 ‘휴먼서비스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은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와 학과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다. 그 리하여 저출산·고령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교 휴먼서비스대학원은 ‘사회복지 및 서비스 정책연구’, ‘사회복지실천전문가’, ‘사회서비스기관 설립 및 운영’ 등 세 가지 전공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풍부한 교과목을 비롯해 다학제적이고 심층적인 교육을 경험할 수 있다. 사회 변화는 물론 학생들의 욕구를 신속하게 수반하는 교육을 제공해 더 인기가 좋다. 또한 사회복지실습 관련 전국적인 실습협약기관체제 및 지역별 전담교수진을 통해 차별화된 실습 지도를 실행하고 있다.

특히 휴먼서비스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과정은 국제적으로도 그 수준을 인정받은 자체 개발 시스템 이러닝 웨이브(e-learning wave)와 더불어 최첨단 캠퍼스, 과감한 교육 투자, 스웨덴 스톡홀름대학 등 해외 명문 교육기관과의 학술교류 및 콘텐츠 공동 개발 등 신개념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교육제공방식 역시 다양하다. 강의와 실시간 화상세미나, 팀 프로젝트, 오프라인수업 등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과 소통 및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무엇보다 학생별로 담당지도교수가 존재해 지속적인 전화 및 오프라인 상담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체제는 인적네트워크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소가 된다.

Mini Interview 휴먼서비스대학원 박기훈 주임교수

실천적 사회복지전문가 육성의 산실 지향

“우리 대학원에 마련돼 있는 세 가지 전문가 양성 트랙, 즉 ‘사회복지 및 정책 전문가·사회복지실천 전문가·사회서비스기관 설립 및 운영’ 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보다 정교하게 제공하여 대학원생들의 실천적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고용 창출도 기대할 수 있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식 배양 및 도전 기회를 만들어볼까 합니다. 시대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있는 인적네트워크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 사회 문제에 창조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선도적 대학원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및 상담심리대학원은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연구·제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대단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상담심리대학원 상담심리학 석사과정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상담심리학석사과정은 다양한 세대와 문화가 공존하는 현대, 그리고 미래사회에서 개인의 적응과 심리적 문제해결에 노력할 수 있는 창의적 상담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크게 ‘세대 간 상담 과정(가족 및 부부상담·성심리 및 성상담·다문화상담·실버상담·진로상담)과 위기관리 상담과정(스트레스의 이해와 상담·분노의 이해와 조절·학교폭력상담의 이론과 실제·자살위기 상담·이혼 상담·중독 상담·범죄 심리 및 상담)’ 두 분야로 특성화되어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심리상담 센터에서는 인턴실습은 물론 사례발표참가, 개인지도감독 등 풍성한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또 전국에 개설되어 있는 심리상담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각 지역 대학원생에게 현장 실습의 기회도 연계 지원하고 있어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각 교수들의 지도 아래 운영되는 연구모임이나 논문지도 모임에 참여할 수가 있다.

온/오프라인 통틀어 국내 최다 교수진을 보유한 본 대학원은 최상의 강의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으며 대학원생들과 교류 역시 매우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해 국제 e러닝대회에서 은상을 받은 바 있는 독자적인 웨이브 시스템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 이는 강의 도중 게시판을 통해 질문을 남기거나 다른 수강

생들과 토론하는 실시간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어 굉장히 효율적이다. 참고로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프로그램까지 자유롭게 끌어올 수 있다. 이렇듯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상담심리학석사과정은 교육과 실습 모두를 아우른다는 측면에서 상담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더욱 기대를 모은다.■

Mini Interview 상담심리대학원 김 환 주임교수

창의적 상담전문가로서의 소양을 책임지다

“상담심리대학원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첫째 과제는 ‘시스템의 안정화’입니다. 이제 설립 2년차지만, 하루 빨리 학생들이 학업과 상담실습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졸업시험, 논문심사, 자격증 준비 등등 학생들에게 지극히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둘째로, 국내 타 상담심리 전문대학원과의 교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상담심리전공과정과 특화되어 있는 대학원의 교수님을 모시고 특강을 듣거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해당 전공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고 현장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리라 판단합니다.”